전남 자영업 화재보험 걱정되네

소상공인 보험가입률 38%…전국 최저 수준

"위험성 못 느껴"… 광주는 67% 전국 최고

전남지역에서 음식점, 오락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0명 중 4명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 가입률은 66.7%로 전국 1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 영세 소상공인들은 업소에 불이 났을 때 복구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인명사고 발생시 최소한 피해를 보상할 뚜렷한 방안도 없는 셈이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말 코리아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전국 음식점, 이·미용업소, 비디오방, 오락실 업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재위험 인식 및 보험가입 현황' 설문조사 결과다.

전남 소상공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8.2%로 전국평균(50.1%)을 크게 밑돌았고 전국 8개 도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충남(42.4%), 경북(42.9%), 충북(43.5%), 경남(45.1%)이 뒤를 이었다.

강원도는 가장 높은 58.1%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사격장 화재로 대형 인명 사고가 난 부산의 가입률은 30.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 소상공인의 가입률은 66.7%로 인천과 함께 전국 최고였다.

화재보험 미가입 이유로는 '화재위험은 있으나, 조심하면 불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를 꼽은 소상공인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못 느껴서'도 20.7%에 달해 화재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을 다루는 음식점의 경우 '조금만 조심하면 불이 안 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1.7%로 오락실(30%), 이·미용업(29.2%) 등 타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소를 임대한 업주들의 경우 '화재가 날 수 있지만, 내 소유 점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대답도 13.6%에 달했다. 그러나 임대점포 화재발생이 '원상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한는'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인지도는 64.3%로 높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화순축협 '녹색한우촌' 개점 화순축협(조합장 송태평)은 지난 5일 화순읍 유천리에서 '자연속애(愛) 녹색한우촌' 개점식을 가졌다. 전남도내 녹색한우브랜드 전문판매장 2호점인 녹색한우촌은 직판장, 셀프식당, 전문식당을 갖췄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금융분쟁, 光銀 전국 최저

고객 100만명당 11건

광주은행의 고객 100만명 당 분쟁건수가 11건으로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감원이 발표한 '2009년 금융분쟁 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금융분쟁이 11건으로 전국 15개 금융기관 가운데 3번째로 낮았다.

광주은행은 또 2008년 20건이었던 분쟁건수를 2009년 11건(-45%)으로 줄여 분쟁감소율 부문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은행측은 이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감소, 서비스 개선책을 꾸준히 추진한 성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부실 판매로 분쟁을 3회 이상 유발한 보험설계사와 펀드 판매 직원 등의 현황을 관리하는 '분쟁이력 관리시스템'을 2분기 중에 도입, 이들 직원을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영업활동을 제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光銀 고금리 주가예금 판매

광주은행이 연 17% 고금리가 적용되는 '더블찬스정기예금 46호'를 8일~22일까지 15일간 한시 판매한다. 주가지수 연동예금(ELD)으로, KOSPI 200지수를 기준으로 연 최고 17.0%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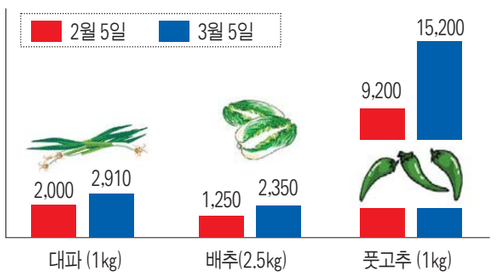
만기지수 결정일에 계약 기준지수 상승률이 25%를 유지하면 17% 금리, 그 이하는 주가 상승률에 따라 이자율이 차감 적용된다. 계약지수를 밑돌면 예금의 원금만 보장된다.

단, 만기 지수결정일 전에 장중 1회라도 기준지수가 25% 초과 상승할 경우 연 5.0% 금리가 확정되는 녹아웃 형(Knock-out)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채소값 쑥쑥 ↑ 장보기 겁나네

■채소 가격 변화 추이 (자료:한국물가협/단위:원)



반찬거리 고민에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배추와 대파를 비롯 기본 반찬거리가 되는 채소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7일 (사)한국물가협회의 가격동향에 따르면 광주는 배추값이 산지 공급물량이 감소하면서 한 포기(상품·2.5kg)에 2천350원으로 한 달 사이 1천100원(88%)이나 올랐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월동배추는 주로 해남지역에서 재배된 것으로 지난 겨울 한파에 따른 냉해로 작황이 좋지 않아 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대파(상품·1kg)도 한달 전보다 910원(45.5%)이나 올라 2천910원으로 조사됐으며, 풋고추(상품·1kg)도 9천200원에서 1만5천200원으로 65.2%나 급등했다.

진도 등 산지 재배면적이 줄어든데다 봄비가 길어지면서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봄나물도 예년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

홈플러스에서는 지난주까지 100g에 780원이었던 냉이 가격이 이번 주에는 980원으로 상승했다. 쑥도 공급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가격이 크게 올랐다. 롯데마트에서 쑥 가격은 작년 980원(100g)에서 올해는 1280원으로 30.6%나 올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겨울 한파 등으로 매장에 내놓을 정도의 품질을 갖춘 물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폭등했다"며 "날씨가 좋아지면 가격도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외국인 매수 등 수급환경 개선 반도체·조선株 관심가져볼 만

1월 중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국내 경기지수가 꺾였다. 지난해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한 국내 경기는 코스피지수의 50% 상승을 견인했지만, 이제 그 경기 모멘텀이 소멸돼 가는 시그널이 켜졌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 추세선으로서 경기선(景氣線)으로 불린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1월말에 이 경기선을 하회한 이후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다. 경기 모멘텀의 소멸에 대한 우려가 그 만큼 강하다는 얘기다.

거래부진에 따른 체력 약화도 문제다. 지수가 경기선을 밑돌기 시작한 이후로 거래규모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경기에 대해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문제는 기대감을 이어가는 요인들도 시장 안팎에 적잖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경기의 경우 경기선행지수가 꺾였으나 그 주된 요인은 1월의 소비감소와 건설경기 부진 등과 같은 내수요인에서 발견된다.

반대로 수출경기의 경우 1월달에 이어 2월까지도 30%대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관건은 1분기 이후 수출동향이다.

그러나 미국 내 고용상황이 나아지면서 소비의 숨통이 트이고 있고, 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7%(2월 기준)까지 높아진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수출경기의 호조세가 한두 달 내로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또 그리스를 둘러싼 남유럽 재정리스크 문제 역시 지난주 그리스가 발행한 50억유로의 10년물 국채 입찰에 그 세 배에 가까운 145억유로가 몰리면서 사실상 불안요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소멸됐다.

국내 증시의 수급환경이 어느 때보다 개선되고 있다. 이달 들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는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매수주체 부재라는 문제를 풀어주고 있다.

여기에 경기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지수가 1,600선 위에서 머무르고 있음에도 국내 주식형펀드로 자금유입이 이어져 기관들의 매수여력도 한층 풀리고 있다.

지난주 이후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도 수급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단기적인 증시 환경에서 수급의 영향력과 주변 변수들의 개선에 따른 투자심리를 감안하면 금주 시장접근은 120일선의 상향돌파 시도에 무게를 두고 반도체 및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수출주 중심의 매수 전략을 권한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